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이승문*

1.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도 그의 저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신학자들이다 – 모든 크리스천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자를 의미한다. 모든 크리스천은 개별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¹⁾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성경’²⁾ 읽기와 듣기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³⁾ 초기 기독교회의

*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교수, 한국 신약학회 회장. leesm@mjc.ac.kr. 본 논문은 2025년 4월 8일 영락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M. Luther, “Sermon Psalm 5”,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Böhlau, 1883), 9-11; B. Witherington III, *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the Can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9),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G. Goldsworthy,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2), 45.
- 2)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거나 쓸 수 없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도시들의 경우, 높게 잡았을 때 약 5%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었다. S. Brown and F. J. Moloney,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Co., 2019), 15.
- 3) 최근 들어 한국교회 목회 사역에서도 평신도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 교회의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라는 현실적 문제 등이 이를 더 가시화하고 있다. 신상목, “포텐셜 레이어티”, 『활천』 855 (2025.2.), 21. 이러한 상황과 아울러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 훈련을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탄생 때부터 성경은 예배 생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성경이 성도의 사상 형성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에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을 보여 준다.⁴⁾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의 중심에 시편을 사용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아니면 적어도 여러) 교단에서 성찬식 때 복음서를 읽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또 그분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믿음이 교회 바탕에 깔려 있음을 증명한다.⁵⁾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그리스도인은 성경 없이 지낼 수 없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혼잡했던 때가 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는 실제로 성경의 입을 막아 버렸다.⁷⁾

‘인공지능 시대’⁸⁾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대와 세대에 적합한 성경 읽기와 듣기가 가능하도록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⁹⁾하여 보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성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회 개신교 초기 시대의 세대들이 가졌던 관심과 성경 활용의 사례와 같이 다음 세대 성경 활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N. T. 라이트,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박장훈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17.

5) Ibid.

6) N. T. 라이트,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김재영 역 (서울: IVP, 2007), 264.

7) Ibid., 265.

8)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극해해야 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찰해야 한다.”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과주: 김영사, 2022), 162.

9)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모든 언어는 변화한다. 이러한 언어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기존 성경을 개정해 주지 않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맞춤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1911년에 나온 우리말 최초의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구역』)를 오늘의 독자들에게 주고 읽어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읽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그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성경전서』(1911)의 롬 1:1과 1:10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려 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틱흠을 넘었스니”(롬 1:1). “구호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훈 길을 얻어 밋츨내 너희에게 나아가려호노라”(롬 1:10).”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앙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2.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 — 알파세대, MZ세대

최근 들어 ‘다음 세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대는 ‘알파세대’, ‘MZ세대’ 등이다. 먼저 ‘알파세대’라는 용어를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맥크린들(M. McCrindle)이었다. 이 이름은 새로움을 표시하고, 옛것으로 돌아가거나 머물지 않는다. 알파세대는 21세기의 두 번째 세대로 간주된다. 2010년도부터 그 이후 세대이다. 알파세대는 ‘앱’(app)이라는 단어가 그해의 단어로 선포되던 동일한 해에 출생했다.¹⁰⁾ 이들은 어떤 이전의 세대들보다도 테크놀로지, 정보, 외적 환경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다.¹¹⁾ 알파세대는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르다. 특별히 그들의 모든 삶이 테크놀로지로 지배되고 있다.¹²⁾ 알파세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은 테크놀로지에 크게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그들의 학습 효율성과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¹³⁾

20대 중/후반의 연령으로 구성되는 대학원 교실은 199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을 M세대, 밀레니엄세대라고 일컫는다.¹⁴⁾ 한편 곧이어 대학생이 될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일컬어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연령층에 속한다. MZ세대와 달리 21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첫 번째 순수 21세기형 연령층이기에 알파세대라고 명명한다.¹⁵⁾

맥크린들을 포함한 일군의 학자들은 알파세대가 2025년 이후 세계 인구의 25%인 약 20억 명에 달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역사상 가장 큰 세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¹⁶⁾ 알파세대가 가진 디지털, 소셜, 글로벌, 모바일, 비주열의 특징들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는, 알파세대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에서는 관상적인 측면, 현실 세계와 연결하

10) R. Ziatdinov and J. Cilliers,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the Next Cohort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10:3 (2021), 784; A. K. Jha,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OSF Preprints (2020), 2-3, accessed 14 February 2025 from <https://doi.org/10.31219/osf.io/d2e8g>에서 재인용.

11) M. McCrindle and A. Fell,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Norwest: McCrindle Research, 2020), 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2803353_UNDERSTANDING_GENERATION_ALPHA (2025.2.14.).

12) Ibid., 784. 알파세대에 대한 교육 전략과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A. Höfrová, V. Balidemaj, and M. A. Small,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 for Generation Alpha”, *Discover Education* 3:125 (2024), accessed 14 February 2025 from <https://doi.org/10.1007/s44217-024-00218-3> 참조.

13) Ibid., 788.

14) 김인수, “기독교 교양과 영성 — 인공지능 시대에 참-인간 형성을 위한 대안”,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32 (2024), 283.

15) Ibid.

16) 김정희, “알파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대학과 선교』 62 (2024), 332.

는 측면, 그리고 몸을 영성 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의 강조가 필요하다.¹⁷⁾ 예를 들어, 성경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살려내며 그 속에서 재미와 의미, 그리고 관상적인 만남의 경험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 등이다.

알파세대와 아울러 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는 ‘MZ세대’¹⁸⁾이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공정성에 민감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이한 MZ세대’라는 프레임은 기성 조직의 임원과 리더들에게 ‘우리 조직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세대가 특이한 것’이라는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줬다.¹⁹⁾ 나와 조직이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고, 특이한 저들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한 해법도 금방 나올 수 있었다.²⁰⁾ 이는 ‘시대 충돌’을 ‘세대 갈등’으로 덮어씌우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긴 균열을 MZ세대의 특성 탓으로 돌린 셈이다. “다음은 또 무슨 세대냐?”라고 되물으며 지겨워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도 세대론이 반복되는 것은, 편리하고 마음 편한 프레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²¹⁾

사실 ‘세대’는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변수다.²²⁾ 엄밀히 말해 ‘세대’란 각 연령대가 10대나 20대 등 가치관 형성기에 겪은 중요한 사건이나 트렌드, 공통된 경험으로 인해 함께 공유하는 정서나 신념, 특성 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²³⁾ 비슷한 경험을 한 인구 집단이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걸 코호트 효과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세대론 자체가 무의미한 분석 틀은 아니다.²⁴⁾ 다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즉 직업이나 소득, 보유 자산과 같은 변수를 지위

17) Ibid., 356.

18)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대학 교육의 사례를 위해서는, 곽호철, 양인철, “MZ세대에게 필요한 기독교대학 체플의 정체성과 방향성: 한남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7 (2022), 67-103; 김진옥, “MZ세대와 소통하는 맞춤형 대학 체플의 모색 — 명지대학교 체플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학과 선교』 55 (2023), 9-29; 곽민정, 오영섭, “다문화사회 교양 수업을 통한 MZ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경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47 (2024), 39-62를 참고할 수 있다.

19) 고승연, 『우리가 싸우는 이유: MZ세대는 없다』 (화성: 프랜비디자인, 2023), 28-29.

20) Ibid., 29.

21) Ibid., 29; MZ 직원들이 이미 직원의 50%를 차지하는 조직이 많으며, 수년 내에 전체 구성원의 70-80%를 차지하게 된다. 인적 구성의 운동장이 바뀌고 있는 오늘날, 직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자발적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지시적 리더십으로는 곤란하다. 이제는 직원 개개인이 셀프 리더가 되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슈퍼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서 ‘슈퍼 리더’는 직원들을 셀프 리더로 변화시키는 ‘상위의 리더’라는 의미이다. 김영기, 『MZ세대와 끈대 리더』, 개정판 (서울: 좋은 땅, 2023; 원출판년 2022), 8.

22) 고승연, 『우리가 싸우는 이유』, 29.

23) Ibid., 30.

24) Ibid.

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²⁵⁾

잘 설명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세대론이나 다음 세대론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이다.²⁶⁾ 게다가 일부 작동하던 세대론의 공식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다. 세대 간 간극이 벌어지는 동시에 세대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한글』 활용

오늘날 대세가 되어 가는 전자책이 인쇄된 책을 누르고 일반화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쇄된 책들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내몰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들다.²⁸⁾ 움베르토 에코(U. Eco)의 표현대로, “구텐베르크와 그의 발명품이 하루아침에 코덱스(Codex)의 사용을 폐지하지 못했고, 코덱스 역시 볼루멘(Volumen: 두루마리 책)이라고 불리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교류를 중단시키지 못했듯이, 관행과 관습은 공존하게 마련”이다.²⁹⁾

MZ세대는 많이 읽지만, 이 ‘읽기’는 ‘눈으로 보기’에 가깝다. 특히 대부분의 ‘읽기’가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텍스트를 정독하거나 천천히 읽는 일은 드물다.³⁰⁾ 디지털 읽기의 경우, 읽다가 지루해지면 창을 꺼 버리거나 읽기 싫은 것은 넘길 수 있다.³¹⁾

MZ세대의 보기에 가까운 읽기, 즉 ‘보는 읽기’가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행위인지에 관한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³²⁾ 이는 보는 읽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문을 꼼꼼히 읽어내는 버릇을 디지털 읽기로는 기르기 힘들다. 디지털 읽기는 사진을 찍듯 텍스트를 ‘보고’ 부분부분 훑는다.³³⁾ 이런 읽기에 익숙한 MZ세대는

25) Ibid.

26) Ibid.

27) Ibid.

28) 박진우,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4.

29) U. Eco and J.-C. Carrière, *This is not the End of the Book* (London: Random House UK Ltd, 2011), 370; Ibid.에서 재인용.

30)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과주: 넥서스BIZ, 2022), 228.

31) Ibid.

32) Ibid., 228-229.

33) Ibid., 230.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취합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자연스럽게 긴 텍스트 접하는 일을 기피하는 성향이 생긴다. 문자 텍스트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긴 영상도 싫어한다.”³⁴⁾

긴 텍스트를 회피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모습 중 하나가 1.5배속 보기다. 요즘 MZ세대는 드라마나 영화를 OTT를 통해 보면서 빠르게 돌려 본다.³⁵⁾ 한 가지 확실한 것은 MZ세대는 긴 텍스트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세대에게 짧은 텍스트로 분할하여 번역된 『새한글』 번역은 매우 읽기에 적합하다.

한편, MZ세대는 각자 말하기에 익숙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하던 밈(Meme) 중에는 ‘무플 방지’가 있었다.³⁷⁾ 요즘 MZ세대는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예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상업적 의도가 없는 이상 집단적 독백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MZ세대의 소통 방식이다.³⁸⁾

문해력, 특히 디지털 문해력이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포함한다.³⁹⁾ 비교는 MZ세대를 대표하는 행위 중 하나다.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MZ세대는 비교하는 일에 익숙하고, 비교를 체화하며 살아간다. 소셜미디어 탓이 크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교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⁴⁰⁾

소셜미디어는 이런 태도를 MZ세대 생활 전반에 걸쳐 확장하도록 도왔다. 단지 교육을 받고 스펙을 쌓는 데만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노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MZ세대가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익숙한 까닭이다.⁴¹⁾ 한편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일반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MZ세대의 점수화는 권위적이기도 하다.⁴²⁾

누구나 자기 경험에 점수를 매기는 문화다. 예전에는 점수를 매기는 역할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배달 애플리

34) Ibid.

35) Ibid. 이렇게 보면, 자막을 틀고 10분짜리 영상을 6분 40초 만에 보는 것이다.

36) Ibid.

37) Ibid., 231-232.

38) Ibid., 232.

39) Ibid.

40) Ibid., 236.

41) Ibid., 236-237.

42) Ibid., 237.

케이션에서는 미식가나 푸드 칼럼니스트가 아니라도 자기가 먹은 음식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⁴³⁾

이 점수화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세대가 MZ세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MZ세대에게는 윗세대가 지니지 못했던 권위가 있다. ‘이름이 있는 권위’는 아니다. MZ세대는 익명이라는 해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다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 권위를 은근히 즐긴다.⁴⁴⁾

3.1. 블로그를 통하여 성경 읽기 공유하기

최근 페이스북은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⁴⁵⁾ 영향력 있는 페이지도 줄고 있으며, 기업들도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고 있다.⁴⁶⁾ ‘다음 세대’는 블로그를 부담 없고 편한 플랫폼으로 여긴다.⁴⁷⁾ 인스타그램처럼 사진과 글자 수 제한도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일상을 기록하기에 부담 없기 때문이다.⁴⁸⁾ 대세였던 짧은 글과 동영상, 이미지 위주의 플랫폼과 달리 길고 편한 ‘투 머치 토크’(too much talk)를 위해 블로그를 찾는다는 점이 재미있다. 이 세대에게 블로그는 오히려 낯선 SNS이기 때문에 새롭고 ‘힙한’ 플랫폼으로 다가왔다.⁴⁹⁾ 광고판으로 편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고, 남들 다 하는 채널이 아니라 특별히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세대가 꼽는 블로그의 매력 중 하나다.⁵⁰⁾

개인이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고 한다.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 아웃’(coming out)의 합성어이다.⁵¹⁾ 90년대생은 직접 움직이는 봉사 활동보

43) Ibid., 238.

44) Ibid., 239.

45) 밀레니얼세대는 38.5%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답한 데 반해, Z세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은 57.6%로 19.1%나 차이가 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서울: 위즈덤하우스, 2021), 93. Z세대는 본고에서는 MZ세대로 포함하여 다룬다.

46) 이런 상황에도 Z세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이유는 페이스북을 메신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Ibid.

47) 다음 세대(Z세대)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블로그가 3위(37.1%)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트위터가 5위, 틱톡이 7위로 나타난 것과 달리, Z세대의 응답에선 트위터(31.2%)가 4위, 틱톡(15.9%)이 5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에 띈다. Ibid., 94.

48) Ibid.

49) Ibid., 94-95.

50) Ibid., 95.

51) 고팡영, 『MZ세대 트렌드코드』 (서울: 밀리언서재, 2021), 238.

다 소비에서 가치관을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⁵²⁾

다음 세대는 ‘기록’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꾸준히 기록하는 데서 얻는 성취감이 좋다는 것이다. 하루 일과부터 취미, 대외 활동, 전공 분야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이런 모습은 다음 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갓생’ 트렌드와도 닿아 있다.⁵³⁾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갓’(God)에 인생을 뜻하는 한자 ‘생’(生)을 붙여 만든 신조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말로 스스로 집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도 갓생 살았다.”, “내일은 갓생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쓰인다.⁵⁴⁾ 갓생을 살고자 하는 MZ세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은 소셜미디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을 쓰는 사람은 31.2%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업로드하는 비율 24.4%보다 많다.⁵⁵⁾ 이 응답자의 대다수는 블로그에 일상 생활을 전시한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죽 나열하고 사진까지 첨부한 다음 “전시 보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 공부도 했다. 갓생 살았다.”라고 적는 식이다. 관련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많다.⁵⁶⁾

3.2. 성경 읽기를 각자 녹음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하기

— 갓생 챌린지 공유하기: ‘미라클모닝’ 사례

‘갓생’은 어떤 다짐이다. 무기력하고 불안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고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갓생은 MZ세대의 새로운 의지다.⁵⁷⁾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개인 차원에서라도 극복해 보려는 모습이다. 다소 절박하기까지 한 표현이다.⁵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MZ세대는 열 명 중 여덟 명에 가까웠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규칙적인 삶을 살 거라고 믿는 MZ세대는 열 명 중 여덟 명에 가까웠다.⁵⁹⁾ 근면하게 살면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MZ세대를 다양한 방식의 갓생으로 이끌었다.⁶⁰⁾ 자기

52) Ibid.

53)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95.

54)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242.

55) Ibid.

56) Ibid., 242-243.

57) Ibid., 243.

58) Ibid., 243-244.

59) Ibid., 246.

60) Ibid.

개발서는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⁶¹⁾

동기부여 전문가인 할 엘로드(H. Elrod)의 『미라클모닝』(한빛비즈, 2022)이라는 책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층이 30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MZ세대의 구매 비율만 따져도 65%에 달한다.⁶²⁾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챌린지’를 해내는 것도 갓생의 모습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달성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인데, 아예 모임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방식도 드물지 않다.⁶³⁾

MZ세대뿐 아니라 알파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도 성경 읽기를 각자 녹음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긴다. 이러한 의미 부여도 갓생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4.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새한글』 활용

4.1. 1박 2일 ‘책밤’을 통한 성경 활용 —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우리는 ‘책밤’이라 부르며 하룻밤 아이들을 모아 놓고 책, 밤, 놀이로 뒤엉킨 비빔밥을 만든다.⁶⁴⁾

모이는 곳: 자연과 어우러진 별과 책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모이는 사람들: 책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이들

엄마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이불 썰매를 타고 베개 싸움을 하느라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셨다. 과연 아이들이 책을 꺼내면 읽을까? 다들 모아 놓고 책을 펼쳤을 때 엄마들은 모두 놀랐다. 활동적으로 놀던 아이들이 책에 놀람도록 집중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광경이다. 여행 계획을 짤 때 각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읽어 주고 싶은 책 2권을 준비해서 한 권씩 돌아가며 읽어 주자고 했는데, 막상 2권씩 전부 읽어 주었는데도 아이들은 더 읽어 달라고 성화였다. 열광적인 아이들의 반응에 엄마들은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책 읽는 밤, 자연휴양림, 별, 이렇게 세 가지를 매달

61) Ibid., 246-247.

62) Ibid., 247.

63) Ibid.

64) 조혜윤,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79.

한 번 모여서 함께 즐기기로 말이다.⁶⁵⁾

책 읽기와 독후 활동 후 아이들의 첫 번째 자치 회의가 열렸다. 5, 6학년 아이들이 의장과 서기를 맡고 책밤에서 지켰으면 하는 규칙들을 정하는 자리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설거지하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신발 정리하기 등 자발적으로 책밤이 운영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다.⁶⁶⁾

안면도 휴양림에서 1박 2일 진행된 책밤 모델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성경 읽기를 책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함께 읽기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필요시 연령대에 맞는 흥미로운 신앙 서적이거나 교양서적을 성경과 함께 병행하여 읽어도 좋을 듯하다.

4.2. 교회 밖 다양한 장소에서 낭독 모임을 통한 성경 활용

성경을 낭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들이 있다.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과 말의 장단, 적당한 목소리의 높낮이와 띄어 읽기를 주의하게 된다. 또 귀로는 자신의 음색과 말투와 분위기를 느끼며 읽으니, 읽고 듣는 두 번의 행위로 내용을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게 된다. 장연심이 인도하는 ‘낭독하는 책 여행기’ 모임에서 낭독을 해 본 결과, “낭독을 하면 할수록 회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특유의 어색한 억양도 많이 고쳐졌으며, 낭독하는 데에 자신감도 생겼다.”⁶⁷⁾

“사람의 뇌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눈’을 통하거나 ‘귀’를 통하는 길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눈으로 책을 읽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두뇌 훈련을 하기에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귀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는 다음 세대의 머릿속 ‘생각의 집’을 건설하는 튼튼한 기초가 된다. 귀를 통해 들은 의미 있는 소리는 나중에 그들이 글을 배워 눈을 통해 글자를 보게 될 때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⁶⁸⁾

뇌는 소리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⁶⁹⁾ 심리학에서는 획득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되뇌는 과정을 ‘시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시연할 경우, 기억은 30초 이상 유지된다.⁷⁰⁾ 따라서 단기 기

65) Ibid., 80.

66) Ibid.

67) 장연심, “낭독하는 책 여행기”,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69.

68) J. 트렐리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눈사람 역 (서울: 북라인, 2007), 47; J. Trelease, *The Read-Aloud Handbook*, 6th ed. (New York: Penguin Books, 2006).

69) EBS 제작팀,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09), 44.

역의 용량을 늘리거나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면 시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⁷¹⁾

예컨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이유는 아이와 대화하는 의도와 같다. 자신감을 북돋고, 흥미를 일깨우며, 결속을 다지고, 정보를 전하며, 현상을 설명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영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책을 읽어 줌으로써 얻게 되는 읽어 주기만의 장점 때문이다.⁷²⁾

읽어주기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책 읽는 것을 즐기게 된다. (2) 배경지식을 늘려 준다. (3) 어휘를 늘려 준다. (4) 독서의 모범을 보여 준다.⁷³⁾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책을 즐겁게 읽는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른이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학생쯤 되면 아무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는다.⁷⁴⁾

4.3. 언어능력을 단시간에 높이는 필사 성경 독서법

성경을 베껴 적는 활동, 필사를 활용하는 독서의 방식도 시도해 볼 만하다. “필사는 언어능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독서법이다. 짧은 시간 안에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⁷⁵⁾ 초보 독서가인 아이에게 250쪽 분량 책의 경우 2주에 한 권 정도가 적절하며, “이보다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면 독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⁷⁶⁾ 중요한 것은 독서의 질이다.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수록 언어능력의 상승 정도도 커진다.⁷⁷⁾ 표준 독서 속도는 소리 내서 읽는 속도와 같거나 더 느린(한 권당 4시간 이상) 정

70) Ibid.

71) Ibid., 44-45. 시간이 길어질수록 철자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시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단기 기억력이 급속하게 낮아졌다. 시연 없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0-30초에 불과했다. 관찰 결과 5세 아이는 2명, 7세 아이는 12명, 그리고 10세 아이는 17명이 입으로 반복 시연을 했다. 시연을 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아이들 역시 시연을 사용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연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72) J. 트렐리츠,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47.

73) Ibid.

74) Ibid., 47-48.

75) 이를 실천한 결과, “중등 2학년 학생 중에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수능 국어영역 편집본 평가점수를 30점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 3개월만 제대로 하면 국어는 물론이고 사회, 과학 계열 과목의 성적까지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남양주: 책구루, 2018), 100.

76)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69.

77) Ibid.

도가 적절하다.⁷⁸⁾

2주 성경 읽기 계획표

10일 - 성경책 정하기 / 책 읽기: 필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안에 지정된 성경 전체를 읽는다. 바울서신 13권 읽기.

4일 - 바울서신 중 빌립보서/빌레몬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사하기: 대상별 시간 계획에 적절하게 선택한 서신 한 책 전체를 베껴 적는다.

대화하기: 도입부나 서신 한 책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⁷⁹⁾

『새한글』을 필사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필사할 때는 숙제를 해 치우듯 빠르게 쓰면 안 된다. 문장의 뜻을 숙지하며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 쓴다. 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필사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본다.”⁸⁰⁾ 읽기와 쓰기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잘 읽는 사람이 잘 쓰고, 잘 쓰는 사람이 잘 읽는다. 읽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이해의 깊이가 얕고, 쓰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문장의 내실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⁸¹⁾

4.4. 반복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 ‘세종대왕처럼 읽기’

세종대왕은 세자로 있을 무렵 글을 읽으면 반드시 백 번씩을 채워 읽기도 하였다.⁸²⁾ 『좌전』과 『초사』라는 책은 백 번 넘게 읽었다. 중국 송나라 대 문장가인 구양수와 소동파의 짧은 편지글을 뽑아 엮은 『구소수간(歐蘇手簡)』의 경우, 세종은 천백 번이나 읽었다고 신하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⁸³⁾

78) Ibid. 참조.

79) Ibid. 참조하여 응용하다.

80) Ibid. 101.

81) “나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나 단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용을 수첩에 천천히 옮겨 적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미처 깨닫지 못한 문맥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그 뜻을 체득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말로 들어 인정하는 것보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체험하기가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문장은 물론 아주 좋은 문장들도 베껴쓰므로 인해 그 맛과 풍미가 더 깊어진다. … 또한 옮겨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리 내어 몇 번이고 되뇌어 읽어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버린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함께 읽으면 쉽게 외워지고 더 오래 기억된다. 이렇듯 읽고, 쓰고, 외우는 삼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내용이든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 되어 적재적소의 순간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석연, 『책, 인생을 사로잡다』 (고양: 까만양, 2012), 27-28.

82) 김진우, 『옛사람 59인의 공부산책』 (서울: 도원미디어, 2003), 13-14.

83) Ibid., 14.

4.5. 책에다 점을 찍어가며 읽기 — ‘타이완의 양즈랑 사례’

문자 독해력이 약한 초중고생이 암전히 앉아 책을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의 지정한 책을 읽을 때, 연필을 준비하여 책에 점을 찍으며 읽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책에다 점을 찍게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진짜 책을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⁴⁾ 사례를 보면, 타이완의 바닷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장화현 루밍중학교의 국어교사인 양즈랑(Yang C.-L.)이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고전 문헌 교재를 강독할 때 시켰던 방법이 점을 찍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점을 찍을 때마다 불평을 했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고전 문헌을 해석하는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중학교 수업 시간에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매우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전한다.

양즈랑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으며 문장부호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을 찍으라고 시켰다. 이 방법으로 나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한 글자 한 문장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글짓기 실력과 문장부호 쓰는 법도 훨씬 좋아졌다.”⁸⁵⁾

“먼저 아이들에게 내용을 읽지 말고 문장부호만 빠르게 찾아서 점을 찍게 하고, 그다음에는 한 문장씩 읽으면서 문장부호에 점을 찍게 했다. 그랬더니 두 방법 모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 성공을 눈앞에 둔 셈이다.”⁸⁶⁾

“점을 찍어도 되는 책을 하나 골라 반 전체와 함께 읽으며 점을 찍고 독후감을 쓰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짧은 글을 모은 책에서 한쪽 정도의 잘 쓴 글을 고르는 편이다. 10분 정도면 다 읽고 점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글자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가 여백에 써 보게 한다. 그리고 글 한 편을 읽은 후에는 200자 정도로 짧막하게 느낀 점을 써 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짧으면서도 힘 있는 글을 읽으며, 틀리기 쉬운 글자를 익히고 동시에 작문 실력도 높일 수 있다.”⁸⁷⁾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용 성경은 1911년에 처음 번역될 때부터 현재의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문장부호 없이 번역되고 출판되었으나, 1967년의 『새번역신약』과 1977년의 『공동』에서 문장부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84) 양즈랑, 『잊지 못할 책읽기 수업』, 강초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6), 95; Yang C.-L., 『記得 這堂閱讀課』 (New Taipei City: 親子天下, 2014).

85) Ibid., 95-96.

86) Ibid., 96.

87) Ibid.

1979년에는 『개역한글』에 문장부호를 붙인 『신약전서 개역』이 출판되었으나 교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에 전체가 출판되지는 않았다.⁸⁸⁾ 하지만, 『새한글』은 현대 문장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에⁸⁹⁾ 점을 찍어가며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6. 캡션기⁹⁰⁾를 활용한 성경 읽기 — 핀란드의 사례

‘읽기는 습득되는 기술이다’. 이것은 읽기가 자전거 타기나 운전하기, 바느질하기와 같다는 말이다. 잘하려면 많이 해야만 한다.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⁹¹⁾ 지난 30년간의 읽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인종, 국가,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이 단순한 공식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읽는 아이가 가장 잘 읽고, 최고의 성취를 이루며, 최종 학력도 제일 높다. 반대로 많이 읽지 않는 아이는 잘 읽지 못한다.⁹²⁾

핀란드 아이들은 (미국보다 2년 늦게) 8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10세가 되면 미국 아이들을 추월한다.⁹³⁾ 우선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거의 모든 아이를 두 돌이 지나면 유아원에 보낸다 ‘학교’⁹⁴⁾는 8세부터 반나절씩 다니는데, 이후 17세가 될 때까지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⁹⁵⁾

정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이나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한 학급의 인원은 30명 정도로 45분간 수업하고 15분간 휴식하며, 모든 급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료이다.⁹⁶⁾ 무엇보다 핀란드의 많은 가정은 책을

88) 전무용,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문장부호를 붙이기 위한 예비적 논의”, 『성경원문연구』 54 (2024.4.), 245.

89) 현대 한국어법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 것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두희, “『새한글 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24-251.

90) 캡션기는 영상의 하단에 자막으로 문장이 표기되는 기능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91) J. 트렐리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49.

92) Ibid.

93) Ibid., 50.

94)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퇴색하여 잘못 불리고 있다. 그리스어 ‘스콜레’(scholē)는 ‘여가’(leisure)를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대화와 게임을 통해 여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양하기 위해 제공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었다. 대화 또는 게임을 지도하긴 했지만 방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정한 학년과 기간과 과목을 정해 놓은 현대의 학교는 그리스의 학교와 몇 광년은 떨어져 있다. E. H. 피터슨, 『균형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재조판 (서울: 좋은 씨앗, 2022; 원출판년 2002), 147; E. H. Peterson, *Working the Angels: The Shape of Pastoral Integr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1987).

95) J. 트렐리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50.

96) Ibid.

읽는 분위기이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일을 매우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는 탄탄한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존재한다.⁹⁷⁾

마지막으로 핀란드에는 캡션기가 보편화되어 집에서 아이의 읽기 가정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핀란드는 3년에 한 번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측정하는 국제 성적 평가에서 15년 내내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⁹⁸⁾

4.7.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 G&M 재단의 PRS(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듣기와 보기를 동시에 하거나 주후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모여 성경을 한 사람이 낭독하고 청중은 듣기만을 하는 방식과 같이 성경을 읽어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듣기와 보기를 동시에 시행하는 지앤엠 재단의 ‘공동체 성경 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하 PRS) 프로그램이 있다.

‘앱’(app)으로 제공되는 바이블 트랙커를 활용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은 분량을 각자 매번 앱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방식인데, 성경 읽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PRS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다.

유진 피터슨(E. Peterson)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마치 동일한 것처럼 취급받는다.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이러한 가정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⁹⁹⁾

이런 일들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회복해야 한다.¹⁰⁰⁾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지, 도덕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반적인 행동은 성경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97) Ibid., 50-51.

98) Ibid., 51.

99) E. H. 피터슨, 『균형있는 목회자』, 147.

100) Ibid., 135.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 — 멀리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듣는 귀 — 를 함양하는 것이다.¹⁰¹⁾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정이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다.¹⁰²⁾

4.8. 개별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새한글』은 공동 읽기와 아울러 개별 읽기에도 매우 적합한 번역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 번역이기에 낭독에 매우 효율적이다. 과거에 서당에서처럼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하던 방식이 오감을 활용하기에 잡념을 없애 집중력을 높이고 전인적인 성경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성 훈련에도 매우 유익하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다매체에 노출되어 성경 읽기를 접하기는 쉬우면서도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에 개별 낭독을 통한 읽기가 적합하다. 개별 낭독이기에 휴대폰이나 녹음기 등의 매체로 음성 녹음을 하여 공유하거나 녹음한 것을 개별적으로 반복 재생하며 경건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나가는 말: 『새한글』의 활용 방안

『새한글』의 번역 특징은,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와 MZ세대가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활용 방안을 위하여 온라인 성경 읽기 방안과 오프라인 성경 읽기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경우, 온라인 성경 읽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활용은 정기적이지 못하고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 읽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모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경 읽기를 독서라고 할 때, “삶과 독서가 상호적이 되어야 하고, 몸짓과 말 그리고 그것의 상호작용이 독서를 삶에 동화되게 하고 삶을 독서에 동화되게 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그것에 꼭

101) Ibid.

102) Ibid.

필요한 활동이다.”¹⁰³⁾ 다음 세대가 『새한글』을 통하여 성경 활용,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창조적인 삶¹⁰⁴⁾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다음 세대, 성경 읽기, 알파세대, MZ세대.

The New Korean Translation, Next Generation, Scripture Reading, Generation Alpha, MZ Generation.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10일)

103) E. H.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2판 (서울: IVP, 2018), 17.

104) 성경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관계를 창조하고 강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새 창조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N. T. 라이트, 『툼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278.

<참고문헌>(References)

- 고광열, 『MZ세대 트렌드코드』, 서울: 밀리언서재, 2021.
- 고승연, 『우리가 싸우는 이유: MZ세대는 없다』, 화성: 프랜비디자인, 2023.
- 곽민정, 오영섭, “다문화사회 교양 수업을 통한 MZ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경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47 (2024), 39-62.
- 곽호철, 양인철, “MZ세대에게 필요한 기독교대학 채플의 정체성과 방향성: 한남 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7 (2022), 67-103.
- 김건우, 『옛사람 59인의 공부산책』, 서울: 도원미디어, 2003.
- 김영기, 『MZ세대와 끈대 리더』, 개정판, 서울: 좋은 땅, 2023; 원출판년 2022.
- 김인수, “기독교 교양과 영성 — 인공지능 시대에 참-인간 형성을 위한 대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2 (2024), 275-315.
- 김정희, “알파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대학과 선교』 62 (2024), 329-359.
- 김진옥, “MZ세대와 소통하는 맞춤형 대학 채플의 모색 — 명지대학교 채플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학과 선교』 55 (2023), 9-29.
-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파주: 넥서스BIZ, 2022.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서울: 위즈덤하우스, 2021.
- 라이트, N. T.,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박장훈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라이트, N. T.,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김재영 역, 서울: IVP, 2007.
- 박진우,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신상목, “포텐셜 레이어티”, 『활천』 855 (2025.2.), 20-25.
- 양즈랑, 『잊지 못할 책읽기 수업』, 강초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6.
-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 이석연, 『책, 인생을 사로잡다』, 고양: 까만양, 2012.
-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김영사, 2022.
- 장연심, “낭독하는 책 여행기”,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68-70.
- 전무용,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문장부호를 붙이기 위한 예비적 논의”, 『성경원문연구』 54 (2024.4.), 245-268.
- 정인모, “서문”, 『고전의 힘』, 서울: 꿈결, 2013.
- 조혜윤,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79-86.
-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남양주: 책구루, 2018.
- 트렐리즈, J.,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눈사람 역, 서울: 북라인, 2007.
- 피터슨, E. H., 『균형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재조판, 서울: 좋은 씨앗, 2022; 원출

판년 2002.

- 피터슨, E. H.,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2판, 서울: IVP, 2018.
- EBS 제작팀,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09.
- Brown, S. and Moloney, F. J.,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Co., 2019.
- Eco, U. and Carrière, J.-C., *This is not the End of the Book*, London: Random House UK Ltd, 2011.
- Goldsworthy, G.,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2.
- Höfrová, A., Balidemaj, V., and Small, M. 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 for Generation Alpha”, *Discover Education* 3:125 (2024), accessed 14 February 2025 from <https://doi.org/10.1007/s44217-024-00218-3>.
- Jha, A. K.,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OSF Preprints*, 2020, accessed 14 February 2025 from <https://doi.org/10.31219/osf.io/d2e8g>.
- Luther, M., “Sermon Psalm 5”,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Böhlau, 1883, 9-11.
- McCrinkle, M. and Fell, A.,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Norwest: McCrinkle Research, 2020, accessed 14 February 2025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2803353_UNDERSTANDING_GENERATION_ALPHA.
- Witherington III, B., *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the Can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9.
- Ziatdinov, R. and Cilliers, J.,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the Next Cohort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10:3 (2021), 783-789.

<Abstract>

**Engag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the
New 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for Effective Scripture Use**

Seung Moon Lee
(Myongji Colleg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effective and context-sensitive strategies for revitalizing Scripture engagement amongst the next generation of the Korean Church — particularly Millennials (the “MZ Generation”) and Generation Alpha — amidst the shifting landscape of digital media, reduced attention spans, and declining biblical literacy. Characterized by short-form content consumption, visual orientation, and a preference for participatory digital environments, these generations often find traditional Bible formats inaccessible or disengaging. In response, the New Korean Translation offers a new, linguistically modern Korean translation that incorporates proper punctuation, simplified syntax, and a cadence suitable for oral reading and digital application.

The study begins by revisiting the communal and oral traditions of early Korean Protestant Bible engagement, particularly through female-driven household evangelism and scripture narratio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Drawing on both sociolinguistic and theological insights, the research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media habits, identity formation, and self-expression tendencies of younger generations — such as the “God-saeng” lifestyle trend, the rise of blog-based self-documentation, and audio-sharing in mobile apps.

From this foundation, the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set of models for optimizing the use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1) digitally-mediated practices such as Scripture narration apps,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latforms, and blog reflections; and (2) offline practices including overnight reading retreats (“book-nights”), handwritten transcription, meditative repetition, and auditory learning via caption devices. These strategies are designed not merely for individual spiritual discipline, but to foster collective identity, sustained literacy, and embodied engagement with the Word.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reading Scripture must be reimagined as an

integrative act of spiritual formation, cultural participation, and communal imagination. The New Korean Translation — with its reader-oriented language and recitation-ready structure — serves as a timely and potent tool for restoring the voice of Scripture among digitally native generations. Through its application, young Christians can cultivate deeper theological understanding and live out a Christ-centered, imaginative faith within a complex and media-saturated world.